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Concepts and Family Systems as Analyzed by the Circumplex Model

한 상 분**

Han, Sang B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concepts and (1) types of functional family systems, (2)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levels, and (3) the satisfaction of children with their current family syste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7 middle S. E. S. children (168 boys, 179 girls) in grade 6. Analysis of functional family systems was by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1985) of the Circumplex Model (Olson et al., 1979). The Self-Concept Inventory (Lim Jae Leun, 1987) was used to assess children's self-concep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one-way ANOVA, Scheffé and Pearson correla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concepts by types of functional systems.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concepts by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levels. That is, the higher the level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 more positive the child's self-concept. The more the child was satisfied with his/her current family system, the more positive the child's self-concept. Children whose family systems were at a high level of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family system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환경이 인간의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별히 가족외적인 영향보다는 가족내적인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시기에 있는 아동에게

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라는 가족상호작용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을 설명하기에는 전체가족성원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작

* 본 논문은 1992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연구원

용하는 가족과정(family process)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부족한 감이 있다.

가족과정 및 가족역동성(family dynamics)이 아동에게 중요한 심리적 환경임을 강조하는 이론적 관점 및 연구들이 1960년대 이래로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다(Handel, 1965).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 간주하는 가족이론의 체계론적 접근법은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가족을 이해하는데 독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체계는 하위체계의 복잡한 조직망으로 구성되어 있어(Minuchin, 1974) 이 하위체계들이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가족전체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가족성원 개개인이 부부, 부모-자녀, 형제하위체계의 구성원이 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가족체계의 상호의존적 성격때문에 체계 어느 한 부분의 움직임이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Becvar & Becvar, 1988). 또한 가족체계는 하나의 개방체계로서 외부체계와 계속적으로 상호교환적 과정을 되풀이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계의 안정을 유지한다(Feiring & Lewis, 1978)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아동발달을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관련시켜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갖게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가족치료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가족치료가들은 아동이 나타내는 병리를 그 아동 개인의 정신내적 과정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계속된 가족체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정의 산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역기능적인 가족상호작용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가족성원의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해냈다. 따라서 역기능적인 가족의 경우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모호하고 폐쇄적이며, 엄격하고 비타협적인 불변의 가족규칙을 갖고 있어 사회와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 한다. 반면 기능적인 가족은 자아가

치가 높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외부체계의 변화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자존감은 가족간의 상호작용 형태를 학습하게 되면서 아동속에 점차 내면화 되는 것으로 가족역동성의 산물이자 가족체계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역동성에 대한 개념정의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나 Olson, Russell 및 Sprenkle(1983)은 가족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개념을 크게 두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Circumplex Model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모델로 만들었다. 이 모델은 가족체계내에서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지원을 나타내는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그리고 가족이 가족내, 외부의 긴장에 대응하여 가족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가족 적응력(family adaptability)의 두가지 차원으로 되어있고, 이 두차원은 각각 4개의 하위수준이 있어 총 16가지의 가족체계 유형이 가능하며 이 16가지 가족체계 유형은 그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3가지의 기능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3가지 기능유형이란 균형을 이루는 가족(balanced family), 중간 수준의 가족(mid-range family), 극단수준의 가족(extreme family)을 말한다. 이중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가장 기능적인 가족 유형으로서 응집성, 적응성의 두 차원 모두에서 중앙수준에 위치한 가족을 말하며 아동발달에도 최적의 수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 가설에 근거하여 가족체계가 기능적일수록 아동의 자아개념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Olson등(1983)의 Circumplex Model에서 중요한 가설중 하나는 이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문화적, 규범적 기대의 차이와 가족성원들의 가족체계에 대한 만족여부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비록 Olson이 기능적인 가족을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차원이 모두 중앙 수준을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극단 수준을 적절한 것으로 지지해주며 가족성원들이 그러한 수준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면, 비록 Circumplex Model에서는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분류될 지라도 그 가족은 기능적인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가족을 대상으로 발전된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봄으로써 한국문화가 지지해주고 한국가족이 만족스럽게 여기는 가족체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있어 가장 기능적인 가족 유형을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lson등의 Circumplex Model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가족체계의 기능적 특징을 유형화 해보고 가족체계의 기능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또 응집성, 적응성의 각 차원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며, 가족체계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가족체계의 특징을 발견해내고 Circumplex Model의 차후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목적하에 본 연구에서 탐구해 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자아개념은 가족체계의 기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자아개념은 가족 응집성, 적응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자아개념과 현 가족체계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체계의 역동성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가족치료 이론은 개인의 병리가 단순히 개인의 정신내적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보다는 잘못된 가족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였다. 이는 Von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론의 영향으로 발전된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병리의 원인이나 치료의 대상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가족체계라는 것이다(Kerr, 1981). 따라서 가족이론가 및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원인이 되는 가족역동성을 개념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가족역동성에 대한 개념이 학자마다 다르고 포괄적이면서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1979년에 Olson, Russell 및 Sprenkle은 가족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여러가지 개념들을 통합하여 Circumplex Model(C.M.)이라는 하나의 통합적 개념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족치료 이론 및 가족관계 문헌에서 추출한 50여 가지의 개념들을 세 가지 개념으로 통합하였는데 (Olson, 1983) 그 세가지 개념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그리고 가족의사소통이다. 이들중 C.M.으로 직접 도식화 됨으로써 가족체계의 기능을 유형화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차원이며 의사소통 차원은 C.M.에 직접 도식화되지 않고 가족 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한다.

2. Circumplex Model의 개관

1)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결속으로 정의되며(Olson et al., 1983) 가족성원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C.M.에서 가족응집성을 진단, 평가하는데에는 다음 8가지의 구체적인 하위영역들이 사용된다. 그것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결속, 가족 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가족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시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공간과 개인의 사적공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의 사적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의 유형, 가족전체 활동과 개인활동 보장 정도를 알기 위한 흥미와 오락의 변인이다. 이러한 8가지의 하위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응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이탈(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밀착(enmeshed)의 4가지로 구분된다. 가족특성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곡선적으로 설명하는 C.M.에 의하면 응집성 수준이 적절할 때, 즉 응집성이 중앙수준(분리와 연결)에 위치할 때 가족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며, 극단의 수준(이탈과 밀착)에 위치할 때에는 가족기능에 문제가 있다.

2) 가족 적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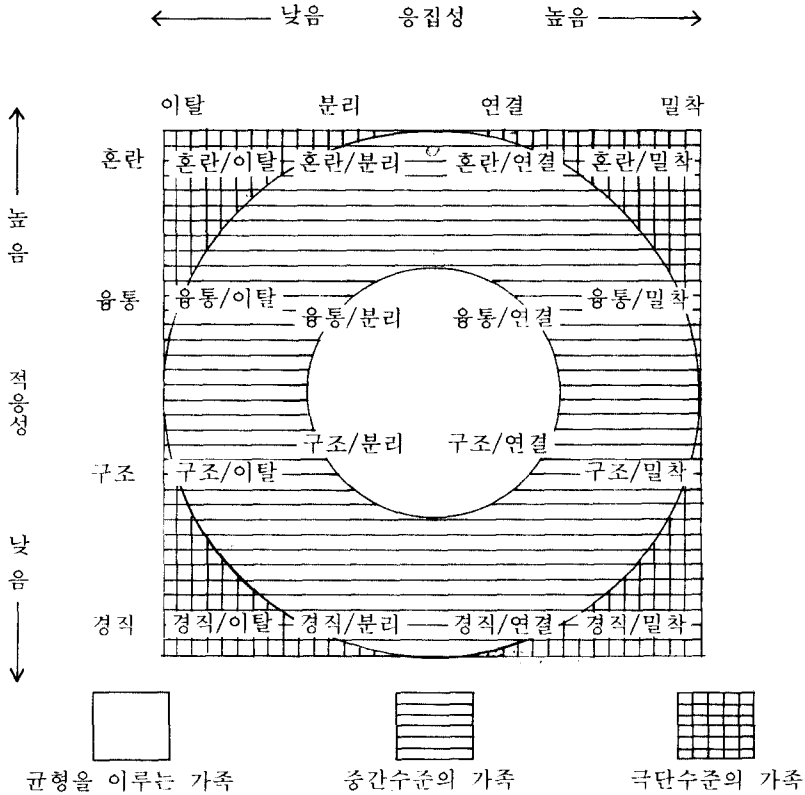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되며(Olson et al., 1979, & 1983)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C.M.에서는 가족 적응성을 진단, 평가하기 위해서 6가지의 하위영역들이 사용된다. 즉,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스타일, 리더쉽의 유형, 부모의 자녀훈육 스타일, 가족성원들간의 협상능력,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

가족규칙의 명확성 및 융통성의 변인들이다. 이러한 6가지 하위 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 적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경직(rigid), 구조(structured), 융통(flexible), 혼란(chaotic)의 4가지로 구분된다. 가족 응집성과 마찬가지로 C.M.에 의하면 가족 적응성이 중앙수준(구조, 융통)에 가까운 범위에 속할 때 가족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며 양극단 수준(경직, 혼란)에 속할 때에는 가족 기능에 문제가 있다.

3) Circumplex Model에 따른 가족체계유형과 중심 가설

C.M.의 축을 이루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4가지 수준을 상호 연결시키면 16가지의 가족체계 유형이 만들어 지며 이 16가지 가족체계 유형은 다시 그 기능적인 면을 고려할 때 <도 1>에서와 같이 3가지의 기능유형(Olson, 1986, p. 339)으로 묶을 수 있다.

이때 Olson등(1983)은 C.M.으로부터 도출된 중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설로 응집성과 적응성에서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 수준의 가족보다 가족 생활주기를 따라서 더 적절히 기능할 것이다. 둘째 가설로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의 가족보다 더 많은 행동의 가능성을 가지며 더 잘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설로 만약 가족에 대한 규범적인 기대가 C.M.의 한차원 혹은 두차원 모두에서 양극단에 속하는 행동을 지지하며 또 가족 각자가 이러한 기대들을 받아들인다면 가족체계는 기능적일 것이다. 비록 C.M.이 일반적으로는 곡선적인 관계를 예측하지만 가족에 대한 규범적인 기대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첫째 가설은 세계 가설로 재진술될 수 있다. 네째 가설로 가족체계에 대한 가족성원들의 현재의 지각과 이상적인 기대간에 일



〈도 1〉 3가지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치수준이 높다면 가족은 가장 적절히 기능할 것이다.

3. Circumplex Model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1) 타 모델과의 비교

최근 L'Abate(1985)는 몇개의 이론적 접근들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정리하여 응집성, 적응성 차원과 유사한 개념들을 제시(Olson, 1986, 재인용, p. 338)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론에 따라 조작적 정의가 조금씩 다르므로 실제로 위 개념들이 응집성과 적응성 차원을 동

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앞으로 여러 이론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개념들과 Olson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C.M.의 개념적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2) Circumplex Model을 적용한 연구

C.M.을 적용한 연구들은 주로 다음의 세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1) 임상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한 연구

Clarke(1984)은 FACES II를 사용하여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 노이로제 환자의 가족, 과거

〈표 1〉 C.M.의 응집성, 적응성 차원과 유사한 타모델의 개념

이 론 가	응 집 성	적 용 성
Beavers와 Voeller(1983)	구심력(centripetal), 원심력(centrifugal)	적응성(체계의 성장)
Epstein et al. (1978)	정서적 관여(affective involvement)	행동의 통제, 문제해결, 역할
Gottmam(1979)	확인(validation)	대비(contrasting)
Kantor와 Lehr(1975)	정서(affect)	권력
L'Abate(1985)	친밀(intimacy)	권력
Leff와 Vaughn(1985)	거리(distance)	문제해결
Reiss(1981)	조정(coordination)	폐쇄

에 치료경험이 있는 가족, 그리고 치료경험이 전혀 없으며 문제를 갖지 않은 가족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4종류의 가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균형을 이루는 가족의 비율은 통제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ACES I 을 사용하여 알콜중독 환자 가족과 알콜중독 증세가 없는 가족을 비교한 Killorn과 Olson(1984)의 연구에서 알콜중독 환자 가족의 21%가 극단수준의 가족 유형을 보인 반면 알콜중독 증세가 없는 가족에 있어서는 극단 수준의 가족 유형이 단지 4%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순덕(1987)은 정상가족과 임상가족의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C.M.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정상가족에 비해 임상가족이 자녀와 어머니 모두의 반응에서 극단수준의 가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C.M.은 문제를 보이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구별해 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 정상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Barness와 Olson(1985)은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C.M.을 활용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연구하였는데 C.M.의 기본가설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

의 가족에 비해 기능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본 가설대로 부모의 응답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의 가족에 비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자녀의 응답에서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중앙수준에 위치한 가족이 아닌, 높은 수준에 위치한 가족일수록 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ler등(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 1985)의 연구에서도 응집성, 적응성 차원과 가족기능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C.M.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연구한 민혜영(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응답에서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의 가족에 비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유순덕(198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FACES II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자아개념을 연구한 손미라(1990)의 연구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의 가족에 비해 자아개념의 일부 영역에서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C.M.연구에 있어서는 Olson이 가정

한 응집성, 적응성 차원과 가족기능간의 곡선적 관계에 대한 가정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가족기능의 측정에 관련되는 제변인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이한 가치 집단간의 비교연구 및 가족만족도 연구

Ribas(1982)는 FACES I 을 사용하여 치카노(Chicano)미국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Olson등(1985)이 일반적인 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응집성, 적응성 점수 수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Zacks, Marrow, & Green, 1988, 재인용), Zacks, Green 과 Marrow(1988)는 FACES III를 사용해 여성동성연애자 커플과 정상커플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 가족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여성 동성연애자 커플의 응집성, 적응성 수준이 정상커플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미국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Olson의 규준에 의해서 가족의 기능유형을 구분할 경우, 극단적인 가족 특히 밀착-혼란 유형에 포함되는 비율이 여성동성연애자 커플에서 현저하게(46.2%)높았다. 그러나 가족만족도는 여성동성연애자 커플이 정상 커플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가치관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C.M.을 사용하여 부적응행동이나 자아개념, 의사소통 수준같은 변인을 연구하는 가운데 가족만족도가 이런 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조사한 연구가 있다. 임용우(1984)는 가족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적응행동이 적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민혜영(1990)도 가족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가족에 대한 문화

적 기대가 다르거나 상이한 가치관을 소유한 가족은 그 기대가 지지해 주는 체계적 특성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오히려 그러한 특성이 가족체계를 기능적으로 유지해 나가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국민학교 6학년 에 재학중인 남자아동 168명과 여자아동 179명의 총 347명의 아동들이다. 표집절차는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볼때 중류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지역에 위치한 2개 국민학교를 선정한 후 각 국민학교에서 6학년생반 4학급씩을 각각 표집하였다. 본래의 표집 아동수는 426명 이었으나 질문지 항목을 빠트린 대상, 원형핵가족이 아닌 편부모 가족,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한 재구성 가족 및 대가족을 제외시킨 결과 347명(426명의 81.5%)이 최종적인 연구대상이 되었다.

2. 연구도구

1) 가족체계 유형에 관한 질문지

가족체계 유형을 구분해 내는 데에는 C.M.의 두차원 즉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할 수 있는 Olson, Portner와 Lavee에 의해 1985년에 제작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FACES III를 연구 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 III는 C.M.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FACES 척도에 관한 시리즈 중 세번째 것으로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질문지는 총 20문항으로 홀수에 속하는 10문항은 가족 응집성

을 측정하며 짝수에 속하는 10문항은 가족 적응성을 측정한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식 척도이고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전체점수의 범위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차원 각각에서 10점에서부터 50점 까지가 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고 해석할수 있다.

또한 FACES III에는 이상형 질문지가 있는데 이것은 FACES III의 각 문항들이 '우리 가족은 ___ _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된 것으로 아동의 가족체계에 대한 만족정도는 이 이상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얻은 각 차원별 점수와 현재 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의 각 차원별 점수와 의 편차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 FACES III의 신뢰도는 현재 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에 대한 질문지에서 응집성 차원은 Cronbach alpha가 .65로 적응성 차원은 .63으로 나타났으며 두 차원을 합한 전체척도의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이상형 질문지에서는 응집성 차원이 .64로 적응성 차원은 .56으로 나타났으며 두 차원을 합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2) 자아개념 측정 질문지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인섭(1983)의 자아개념 검사를 임재련(1987)이 요인 분석하여 재구성한 수정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송인섭(1983)의 자아개념 검사는 10세 아동부터 중, 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검사의 구성은 일반자아, 학급자아, 능력자아, 성취자아, 사회적자아, 가족자아, 정서자아, 신체자아의 총 8가지 개념으로 되어있다. 임재련(1987)은 송인섭(1983)의 자아개념 검사도구 중 복합적이고 반복된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빼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사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학급자아와 학업 성취자아가 하나의 척도로 합쳐져 총 7개의 하위

척도로 검사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재련이 사용한 척도들 중 능력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척도들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아동에게 어려운 어휘들은 약간의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식 척도이고 각 차원별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일반자아 개념이 Cronbach alpha가 .82, 학급 및 성취 자아개념이 .89, 사회적자아 개념이 .80, 가족자아 개념이 .93, 정서자아 개념이 .83, 신체자아 개념이 .6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작성상의 문제점 및 아동의 문항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1991년 12월 10일에 국민학교 5학년 아동 6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가지 질문지를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였으며 아동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표시한 문항이나 난해한 문항은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1992년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내 K구에 있는 I국민학교와 Y국민학교에서 각각 6학년생반 4개 학급을 선정하여 총 8개반의 아동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석사 과정에 있는 보조연구자 2명과 함께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문제 1, 2에 대해서는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 및 응집성, 적응성 수준에 따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é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가족체계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아동의 자아개념 점수간의 상관(Pearson의 r)을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이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을 구분하는데 사용하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차원을 각각 4가지 수준으로 분류했다. 분류의 방식은 FACES III 편람에 제시된 방식과 동일한 분류방식으로서 각 차원의 평균점, 그리고 표준편차의 상 또는 하 1이 되는 점수가 수준을 구분하는 분류점이 된다.

본 연구자료에 의한 두 차원의 각 수준별 점수 범위는 아래의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가족 응집성의 수준별 점수범위

	이 탈 범위(%)	분 리 범위(%)	인 결 범위(%)	밀 착 범위(%)	전 체 M, SD
본 연구 (n=347)	10-30 (16.2)	31-35 (27.2)	36-41 (40.9)	42-50 (15.7)	M=35.9 SD=5.5
FACES III (n=1315)	10-31 (18.6)	32-37 (30.3)	38-43 (36.4)	44-50 (14.7)	M=37.1 SD=6.1

<표 3> 가족 적응성의 수준별 점수범위

	경 직 범위(%)	구 조 범위(%)	용 통 범위(%)	혼 란 범위(%)	전 체 M, SD
본 연구 (n=347)	10-27 (19.2)	28-33 (31.1)	34-39 (34.0)	40-50 (15.7)	M=33.3 SD=6.2
FACES III (n=1315)	10-19 (15.9)	20-24 (37.3)	25-29 (32.9)	30-50 (13.9)	M=24.3 SD=4.8

이상의 분류결과에 따라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3가지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은 다음과 같은 점수범위에 따라 구분되었다.

1. 균형을 이루는 가족 : 응집성 점수가 31-41

이며 적응성 점수가 28-39인 경우

2. 중간 수준의 가족 : 응집성 점수가 31-41이며 적응성 점수가 10-27 또는 40-50인 경우, 그리고 응집성 점수가 10-30 또는 42-50이며 적응

성 점수가 28-39인 경우

3. 극단 수준의 가족 : 응집성 점수가 10-27 또는 42-50이며 적응성 점수가 10-27 또는 40-50인 경우

이와같은 구분방식에 따른 3가지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별로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가족체계유형별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N=347)

자아개념 \ 가족유형	균형가족(n=171)	중간가족(n=120)	극단가족(n=56)
	M (SD)	M (SD)	M (SD)
일 반 자 아	50.6(6.1)	49.4(8.6)	48.5(10.3)
학 급 및 성 취	77.8(11.2)	77.2(11.9)	76.2(15.3)
사 회 자 아	52.1(5.9)	52.6(7.6)	52.2(8.3)
가 족 자 아	76.5(10.1)	74.5(12.4)	72.8(17.0)
정 서 자 아	38.8(5.5)	38.6(6.7)	38.1(8.6)
신 체 자 아	37.5(5.1)	36.6(6.6)	36.4(6.8)

* 자아개념 하위척도에 따라 n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중간수준의 가족, 극단수준의 가족 순으로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값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원변량 분석결과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1) 가족 응집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먼저 응집성 차원의 4가지 수준별로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같이 각 수준별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치는 응집성 점수가 높아 질수록 일괄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수준에 따라 자아개념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 일반자아(F=33.89), 학급 및 성취자아(F=30.54), 사회자아(F=26.49), 가족자아(F=56.69), 정서자아(F=32.65), 신체자아(F=18.80)개념 모두에 있어서 그 차이가 통계적($p < .001$)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차이가 응집성의 4개 수준중 특별히 어느 수준간의 차이에서 기인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자아개념의 전 영역에서 응집성 수준 상호간의 차이는 모든 수준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p < .05$)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으며 그 경향은 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 수준이 응집성이 가족기능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C.M.의 곡선적인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직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결과였다.

〈표 5〉 응집성 수준별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N=347)

자아개념 \ 수준	이 탈(n=56)	분 리(n=94)	연 결(n=142)	밀 착(n=55)
	M (SD)	M (SD)	M (SD)	M (SD)
일 반 자 아	43.2(8.8)	48.4(6.7)	51.2(6.4)	55.8(7.2)
학 급 및 성 취	67.5(10.8)	74.1(10.8)	79.8(10.5)	85.9(11.7)
사 회 자 아	47.5(6.8)	50.7(6.6)	53.2(5.7)	57.7(6.4)
가 족 자 아	61.9(12.4)	72.6(10.3)	78.2(9.6)	85.3(7.9)
정 서 자 아	33.4(6.9)	36.9(6.8)	39.9(5.2)	43.4(5.9)
신 체 자 아	33.2(5.4)	36.4(6.0)	37.4(5.2)	41.0(5.3)

* 자아개념 하위척도에 따라 n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2) 가족 적응성에 따른 자아개념

적응성 차원의 4가지 수준별로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수준별 자아개념 점수들의 평균치는 적응성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일괄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수준에 따른 자아개념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량 분석을 한 결과 일반자아(F=16.80), 학급 및 성취자아(F=16.11), 사회자아(F=9.77), 가족자아(F=23.49),

정서자아(F=11.65), 신체자아(F=8.99) 모두에 있어서 그 차이는 통계적(p<.001)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차이가 적응성의 4개 수준중 특별히 어느 수준간의 차이에서 기인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적응성 수준 상호간의 차이는 6개 자아개념 영역 모두에 있어서 주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간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으며 경향은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도 높은

〈표 6〉 적응성 수준별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N=347)

자아개념 \ 수준	경 직(n=67)	구 조(n=108)	용 통(n=118)	혼 란(n=54)
	M (SD)	M (SD)	M (SD)	M (SD)
일 반 자 아	44.9(8.3)	49.2(7.0)	51.8(6.6)	53.1(7.9)
학 급 및 성 취	70.4(11.0)	75.6(12.3)	79.7(11.0)	83.9(11.1)
사 회 자 아	49.6(7.0)	51.3(7.1)	54.0(6.2)	55.9(6.9)
가 족 자 아	66.7(13.1)	73.6(11.7)	78.0(10.5)	82.7(9.0)
정 서 자 아	35.7(6.5)	37.7(6.0)	39.7(6.0)	41.8(6.6)
신 체 자 아	34.0(6.3)	36.8(5.4)	38.2(5.4)	38.6(6.3)

* 자아개념 하위척도에 따라 n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것으로 나타나 중앙수준의 적응성이 가족기능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C.M.의 곡선적인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직선적인 결과였다.

3. 현 가족체계에 대한 만족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가족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아동의 자아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의 응집성, 적응성 점수와 이상형을 사용하여 얻은 점수간의 편차점수를 구하여 자아개념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현재 가족체계와 이상적 가족체계간의 각 차원별 편차점수와 자아개념 점수와의 상관계수

자아개념 차원	일 반	학 급 및	사 회	가 족	정 서	신 체
	자 아	성 취자아	자 아	자 아	자 아	자 아
응 집 성	-.35**	-.30**	-.22**	-.37**	-.35**	-.24**
적 응 성	-.24**	-.20**	-.16*	-.24**	-.18**	-.13

* p<.01, ** p<.001

<표 7>에서처럼 현 가족체계의 이상적 가족체계간의 각 차원별 편차점수와 자아개념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가족체계와 이상적 가족체계간의 점수차이가 적으며 가족만족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자아개념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적응성 차원보다는 응집성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개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일반적인 자아개념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동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가족체계는 어떠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가족체계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가족체계의 응집성, 적응성 차원의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가족체계의 응집성, 적응성 점수의 평균이 현

<표 8> 현재 가족체계와 이상적 가족체계의 응집성, 적응성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표

차원	응 집 성	적 응 성
	M (SD)	M (SD)
현재 가족체계	35.9(5.5)	33.3(6.2)
이상적 가족체계	41.7(4.7)	40.6(4.6)

재 가족체계에 대한 응집성, 적응성 점수의 평균보다 높았다. 이러한 점수의 향상은 가족만족도가 낮은 아동들로부터 연유한 것이며, 이들은 현재의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응집성, 적응성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 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아동의 자아개념이 가족체계의 기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균형을 이루는 가족, 중간수준의 가족, 극단수준의 가족 순으로 자아개념 점수가 증가되는 경향은 있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의 가족에 비해 더 기능적일 것이다라는 C.M.의 기본적인 가설과는 다른 결과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다음 두번째 연구문제의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두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차원의 각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향은 응집성, 적응성 수준이 높을 수록 자아개념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중앙수준의 응집성, 적응성이 가족기능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C.M.의 곡선적 관계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직선적인 관계 결과로, 본 연구에서 3가지 가족체계의 기능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이 차이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즉, C.M.의 가설에 근거하여 예측을 한다면 응집성, 적응성 차원에서 중앙수준에 위치한, 균형을 이루는 가족의 아동들이 극단수준에 위치한 가족의 아동들 보다 더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높은 응집성, 적응성 수준인 밀착, 혼란수준에 있는 아동들이 역시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였는데, 이들이 극단가족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극단가족의 자아개념점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극단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점수가 균형을

이루는 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점수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3가지 기능유형간의 차이를 유의하지 않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C.M.의 두차원과 가족기능간의 직선적 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가 있다. Miller등(1985)의 연구에서는 응집성, 적응성 차원에서 높은 수준인 밀착, 혼란에 속하는 집단들이 McMaster Family Assesment Device로 가족기능을 평가한 결과 건강한 가족으로 나타난 반면 낮은 수준인 이탈, 경직에 속하는 집단은 병리적인 가족으로 나타났다. 이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응집성, 적응성의 높은 수준이 병리적인 가족기능을 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가족기능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C.M.의 기본적인 가설이 지지되지 않고, 응집성, 적응성 두차원과 자아개념간에 직선적 관계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상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임상가족이 보여줄 수 있는 응집성, 적응성의 다양한 점수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일한 점수 형태를 보여 주었을 수 있다. 또한 가족체계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것이 아니라 본 연구대상들이 얻은 응집성, 적응성 점수를 기준으로 설정된 상대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점수범위에 따라 극단, 중간, 균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는 될 수 있지만 모두 정상가족의 아동들이기에 임상가족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높은 응집성, 적응성 수준에 속한 아동들이 사실은 극단수준의 가족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가족의 아동들일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C.M.의 세번째 가설에 근거하여 미국과 한국간의 문화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기

능적인 가족에 대한 한국문화의 기대나 정의가 미국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독립성을 강조(Olson, 1985)하는 반면 우리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정분위기의 조화와 화목을 중요시 해왔고(김재은, 1974),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애정적인 접촉이 강조되어 왔다(윤진, 1985). 따라서 미문화권내에서는 중앙수준의 응집성이 가족기능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밀착수준이 더 긍정적이고 기능적일 수 있다. 해방이후 서구의 가치관이 전해지면서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가 점차 이상적인 가치로 부각되어 한국가족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끼쳐왔으나 아직은 전통적이며 가정중심의 권위주의, 남성우위적 사고방식 등으로 고정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많다. 즉 사회변동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가 사회적 가치면에서 더 급진적이며 민감하게 나타나는 반면, 가정과 관련된 가족의 가치는 덜 급진적이며 덜 민감하게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1985). 따라서 우리나라 가정의 적응성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미국 가족의 적응성 수준보다 낮을 수 있으나 그것을 지각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적응성 수준이 역기능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적인 가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세번째 연구문제인 가족만족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클수록 아동의 자아개념도 긍정적이었다는 결과를 통해 설명력을 갖게 된다. 즉, 우리문화가 응집성과 적응성의 높은 수준인 밀착, 혼란유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를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밀착, 혼란유형은 가족기능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아동은 높은 수준의 응

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는 아동들이었고 만족도가 낮았던 아동들은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보다 높은 수준의 응집성 적응성을 원했었다.

세번째의 설명은 FACES III의 문항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래 FACES III의 5점 척도 문항들은 척도가 높은 점수에 반응할수록 역기능-기능-역기능의 곡선적인 측정치가 되도록 의도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역기능-기능의 직선적인 측정치를 내기쉽게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1번 문항의 경우 “항상 그렇다”라는 5점에 반응할 때 이 가족이 역기능적인,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가족간의 단합이 잘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적인 가족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진 응집성, 적응성 차원과 자아개념간의 직선적 관계를 위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유형과 가족기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민혜영, 1990; 손미라, 1990; 유순덕, 1987; 임용우, 1984)은 Olson이 가정한 곡선적인 관계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적인 유형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응집성, 적응성인 밀착, 혼란유형이라고 단언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함으로써 C.M.의 응집성, 적응성 차원과 가족기능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C.M.의 기본가설들을 계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기 위해 가족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이 정말 C.M.에 기초한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의미있게 변별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방법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보는 일이 필요하다. 전술한 국내 연구들은 3가지 가족 기능유형에 따라 관련변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차이검증만을 한 후에, Olson이 제시한 바대로 균형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의 가족에 비해 더 기능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응집성, 적응성 차원과 관련변인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상관을 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번째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C.M.의 기본가설 중 가족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다르다면 기능적인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수준은 달리 설정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표집과 전 가족성원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한국문화가 지지해주는 정상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밝혀내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국민학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얻어 냈기에 연구결과를 타지역 아동들에게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또 가족체계특성에 대한 가족구성원 전체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연구의 제한점은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첫째, 이제까지의 자아개념 연구와는 달리 가족체계의 역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체계의 기능을 유형화해보고 이것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있어 바람직한 가족체계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C.M.을 활용하여 연구한 몇몇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C.M.을 우리나라 가족에 적용할 경우, 아직 더 많은 국내 타당화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앞으로 C.M. 관련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

짐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C.M.의 활용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결 론

첫째, 아동의 자아개념은 가족체계의 기능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다.

둘째, 아동의 자아개념은 가족응집성, 적응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응집성,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도 긍정적이다.

세째, 아동의 자아개념은 현 가족체계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응집성, 적응성 수준이 높은 가족의 아동이 가족만족도도 높다.

참 고 문 헌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미라. (1990). Circumplex Model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성자. (1987).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 홍익사.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원.
- 유순덕. (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1985). 노부모와 중년자녀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 임용우. (1984). 가족체제 유형과 청소년의 부정적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재련. (1987).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발달적 특성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진. (1985). 한국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및 갈등.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 Barness, H.,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7-447.
- Beavers, W. R., & Voeller, M. N. (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s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Becvar, D. S., & Becvar, R. J. (1988). Family therapy. Needham Height, Massachusetts: Allyn & Bacon, Inc.
- Feiring, C., & Lewis, M. (1978). The child as a member of the family system. Behavior Science, 23, 225-233.
- Handel, G. (1965). Psychological study of whole families. Psychological Bulletin, 63, 19-41.
- Kerr, M. E. (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er Mazel.
- Killorin, E., & Olson, D. H. (1984). The chaotic flippers in treatment. In E. Kaufman(Ed.), Power to change: Alcoholism. New York: Gardner Press.
- Miller, I. W., Epstein, N. B., Bishop, D. S., & Keitner, G. I. (1985). The Ma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ehrapy, 11, 345-356.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Olson, D. H. (1985). Commentary: Struggling with congruence across theoretical models and methods. Family Process, 24, 203-207.
- Olson, D. H., (1986).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337-351.
- Satir, V. (1988). People making. Palo Alto, C. 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Von Bertalanffy, L. (1968). General systems theory. New York: George Braziller.
- Zacks, E., Green, R. J., & Marrow, J. (1988). Comparing lesbian and heterosexual couples on the Circumplex Model: An initial investigation. Family Process, 27, 474-484.